

I.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13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13의 주제

본 협회 국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The 13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Boundary and Beyond”로 부제를 “분야간 소통으로 재충전하는 건축”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치권력과 건축”, “철학, 예술과 소통하는 건축”, 그리고 “환경, 경제 그리고 건축”의 3개의 분야로 나누어 Session을 진행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개회식(Opening Ceremony)

10월 30일 부산 BEXCO의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ACA-13의 시작은 우리 전통의 강력한 북소리에 이어, 아시아 각국 대표들과 아카시아 임원들,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대표단의 입장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국무총리의 영상 축하 메시지로 축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강연장에 준비된 2,000석 정도의 좌석을 가득 메우고 외부 홀에 서성이던 건축사들까지의 수를 고려하면 거의 2,500여 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하였다.

기조연설(keynote Speech)

첫 번째의 기조연설자인 유흥준 교수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유산’을 주제로 마치 자신이 집필한 우리 문화유산답사기를 차분하게 재정리하는 듯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경주의 왕릉으로부터 불국사, 부석사 등 유수한 우리의 건축문화의 깊이를 미술사를 전공한 교수답게 서양의 건축미와 구분하며 알 수 없는 깊이를 전달했다.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건축으로 우리 조상의 얼을 드높였고, 그 깊은 산에 어울리는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조상의 지혜에서 이미 건축의 경계를 넘어선 공간의 깊이를 보여주었으며, 그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건축사들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삼국사기의 김부식의 글인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이라는 절제된 문장은 우리의 깊은 정신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일본의 이소자키 건축사는 ‘7년, 이전 그리고 이후’를 주제로 세상이 60년 주기로 변화하는 것과 60년 전의 1940년대의 국수주의적 사고에서의 세계대전을 치른 시대에서 21세기로의 흐름은 디지털화된 IT의 발전에 의한 세계화를 거부할 수 없고 새로운 상업적인 변화의 요구에서 건축과 예술이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대전이 지난 60년 후 발생한 2001년의 9.11 테러와 지금 강대국 간의 자원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들은 인간존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풀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을 부산에 온 이소자키선생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Session 강연

2008년 10월 31일 오전에 열린 「Session I」에서는 ‘정치 권력 속에서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카시아의 사무총장인 최재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연사는 한국의 김영섭 교수, 네덜란드 문화원의 Ole Bouman 원장, 싱가포르의 건축등록원의 이사이며 건축 도시 설계원의 이사인 Larry Lye Hock, 말레이시아 중국인협회 회장인 Dato Seri Ka Ting 전 장관, 중국 동지대의

Wo.Jiang 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었다.

김영섭 교수는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이끌어진 한국 도시의 총체적인 부실과 개발에 대한 인간의 의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권력자의 의지 등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좀 더 잘 다듬어진 도시는 자연에 순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수직적인 도시보다는 수평적인 복합용도 도시로 조화로운 삶의 도시를 제안한다. 전통과 과거의 지혜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문화원장인 Ole Bouman 씨는 네덜란드 문화원이 네덜란드 건축계에서 건축문화 활동의 하나로 일구어진 성과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네덜란드 건축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권력은 정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인으로서 권력을 나누어 갖고 정치인이나 정책수립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비전을 갖고 제안하고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해야함을 피력했다. 그가 강조한 건축전문가들을 위한 두 개의 전략은 첫째, 건축의 힘을 믿고 삶을 구축하고 재조직하는 전문가로서의 건축이아말로 건물을 뛰어넘는 전략이며, 둘째는 사회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건축을 건축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건축의 힘이 아래로부터 상부의 정책수립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Seri Ka Ting 전 장관과 싱가포르의 Larry Lye Hock 그리고 중국의 Wu Jiang 교수는 자신들이 정책수립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있던 정부기관에서 권력을 이용해 좋은 도시계획을 펴나간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전략수립자들 측에서의 건축전문가나 도시 계획가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저했다.

Larry는 싱가포르의 성공의 현주소는 정부의 좋은 제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등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강조한 반면, 공공의 이익이 정부의 권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네덜란드의 Ole Bouman 원장과의 시각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던 대목이었다.

중식 후 이어진 「Session II」는 아카시아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싱가포르의 Rita Soh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의 최문규 연세대 교수, 방글라데시의 건축사인 Nurur Khan 그리고 뉴욕의 Storefront의 관장인 Joseph Grimmer으로 발표를 했다.

최문규 교수는 건축 접근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건축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의 질문을 갖고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 더 크고 높고 스펙타클한 건축은 이제 미디어의 관심뿐 아니라 건축사의 관심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하고, 철학과 예술은 건축과 서로 만나고 배치되면서 질문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자신의 질문 속에서 현대 건축이 공간적이지 못하고 평면적임을 지적하고 m²를 공간의 재해석의 기법으로 실험적인 접근 방법을 보여준 반면, Nurur Kahn은 역사적으로 예술과 철학이 끊임없이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프로젝트들을 통해 그 영향에 대한 깊이를 논했다.

특이하게 건축사가 아닌 Joseph Grimmer는 Storefront가 예술 갤러리로서 어떻게 건축과 연계하여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는 수년간 Storefront가 실행한 건축적 프로젝트를 통해 Storefront가 단순한 갤러리가 아닌 아이디어의 소통의 장소이고, 공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뉴욕의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는 한국계의 박 경씨가 설립한 갤러리로 Steven Holl 이 설계한 12개의 피봇 전시패널 도어로 유명하다.

「Session III」의 연사는 중앙대 교수이며 환경 전문가인 이연구 교수, 필리핀의 Danilo Silvestre 교수, 한국 송도 신도시의 민간 시행회사인 Gale International의 부사장인 Charles Reid,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

약에 관련된 건축설비 실무에 있어서 세계의 일인자인 독일의 Klaus Daniels 교수이며 Rita Soh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연구 교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제목으로 지속가능한 설계의 요소들을 4개의 설계방법을 조화한 것으로 성취할 수 있음과, 왜 건축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해야 하는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었고, Silvestre 교수는 새로운 건축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새로운 기술들 즉, Biomimetic, Microbiology, Nanotech 등을 현대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Charles Reid 부사장은 한국의 송도 신도시 등의 개발을 통해서 정책수립자가 아닌 민간 개발자가 주도하여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사례를 보여주었고, 특히 Klaus Daniels 교수는 세계적인 일인자답게 Dominique Perrault 이나 Richard Rogers 등과 같은 대가들과 실제 적용된 여러 설계 기법을 통해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를 선보이며 강연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II. 제29차 ARCASIA Council Meeting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거쳐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Council Meeting은 ARCASIA의 임원과 네팔의 대표단을 제외한 16개 회원국의 대표단(공식 대표단 각 2명)이 참석하였다.

아카시아 이사회 안건 중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회원국의 연회비 인상: 각 회원국의 연회비를 USD 1000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USD 500, 네팔은 USD 200로 결정함.

2. ARCASIA Center : 아카시아 센터 부지는 부산에 확정되었으나, 건립 일정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추후 추진일정이 지체없이 진행될 경우 2011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설명함(발표 심재호).
3. ARCASIA Website : 현재까지 설정된 홈페이지 상황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정비는 KIRA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콘텐츠 관리는 회장국에서 하는 것으로 함.(발표 신춘규)
4. Forum 15 개최지 결정 : Forum 15의 개최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결정되었고 주제는 "City and Politics" 로 결정했으며 국회의원 등 많은 정치인을 초청할 계획임.
5. 위원회 보고
 5. 1 실무위원회(위원장: Rita Soh):
 - 아시아 회원국들의 실무 현황을 UIA에 널리 홍보하기로 함.
 - 아카시아 홈페이지의 PPC 섹션을 UIA PPC와 연계 요청함.
 5. 2 친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Kazuo Iwamura)
 - 실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홍보하기로 함.
6. 교육위원회 보고(위원장: Divya Kush)
 - 차기 의장에 한국의 정재욱 위원장이 선출됨.
7. Fellowship 회의 보고(위원장: Rabiul Hussain)
 -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위해 Young Architects' Forum(age up to 40)을 만들기로 하고 학생 잼보리가 없는 포럼의 해에 개최하기로 함.
 - 재난 대책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태국이 초기 의장을 맡아 준비하기로 함.
8. ACA-14 개최지 결정 : ACA-14는 파키스탄의 Lahore에서 개최하기로 함.
9. 차기 위원회 의장들의 선출
 - 실무분과위원회(APPC) 의장: Edric Marco C. Florentino, UAP
 - 친환경분과위원회(AGSBC) 의장: Ben Nakamura, JIA
 - Zone A 부회장: Jayantha Perera, SLIA
 - Zone B 부회장: Rita Soh, SIA
 - Zone C 부회장: Batjav Batkhuyag,

UMA

10. 회장직 이양 : 이근창 회장이 차기 회장인 Mubasshar Hussain에게 이양하고 아카시아기를 전달함.

III. 29th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Meeting

제29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2008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회의실에서 주최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위원장인 인도의 Divya Kush가 의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한국 대표로는 정재욱 국제위원회 위원장과 김성민 국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10월 28일]

1. 제28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검토

2007년 9월 16일-17일에 콜롬보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사항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채택함.
2. 학생 잼보리 활동 보고

ACA-13의 행사로서 10월 27일-31일에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생 잼보리에 대하여 정재욱 학생 잼보리 위원장이 내용과 진행사항을 보고함. 국내에서 선발된 10명의 교수가 15인 이내의 학생을 1팀으로 지도하여 "Asiascape"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작업을 수행하여 발표회를 가짐.
3. 국가별 보고서

각 국가의 건축교육에 관련된 연혁, 제도, 통계 등 각종 자료를 서면으로 배부하고 각 국가의 대표가 주요 내용을 보고함. 한국은 5년제 건축대학과 인증제도 등 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일본은 4+2년제의 유지와 인터넷의 강화, 2011년 UIA총회와

학생 잼보리의 홍보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태국은 건축졸업생의 공급초과현상, 파키스탄은 교수요원의 절대부족 현상 등에 대하여 발표함.

[10월 29일]

1. 교육위원회 프로젝트 토의
 - 1.1 건축연대표(Time Line Chart) 보완

아시아 각국의 건축 학생이 다른 국가의 건축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축 연대표의 보완 내용과 진행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토의함.
 - 1.2 국가간 실습(Cross Border Training)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건축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하여 토의함.
 - 1.3 아시아 건축학교(Asia School of Architecture)

아시아 각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당분간 논의를 중단하기로 함.
 - 1.4 지속교육(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in Asian Countries)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인증제도 및 시행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함.
 - 1.5 새로운 경향

각국의 새로운 조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의함.
2. 제29회 교육위원회 보고서 채택

양일간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을 검토함.
3. 차기 위원장 선출

앞으로 2년간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한국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단국대학교의 정재욱교수가 차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

IV. 2008 아카시아 학생잼보리 (ARCASIA Student Jamboree 2008)

아카시아 학생 잼보리는 격년으로 열리는 아카시아 Congress의 행사와 더불어 아카시아 회원국의 건축 대학생들을 초빙하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건축사들과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5개국에서 14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참가국은 Australia(2), Bangladesh(14), China(2), HongKong(4), India(2), Japan(1), Korea(51), Malaysia(10), Mongolia(10), Pakistan(2), Philippines(22), Singapore(4), Sri Lanka(11), Thailand(10), Vietnam(3) 등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2008 학생잼보리 Convenor(위원장)인 정재욱교수를 비롯하여 건축사와 건축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튜터들은 1년 전부터 주제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준비하여 왔다. 이번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10월 27일 월요일에 숙박장소인 부산 아르피나호텔에 모이면서 등록을 시작하여 28일, 29일에는 1박 2일의 워크샵에 참석하고 30일 오전에는 워크샵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 오후부터는 아카시아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에 이어 31일의 Session에 건축사들과 함께 참석하고 학생들만의 부산투어를 한 후 마지막 행사인 Friendship Night에 다시 함께 참석하는 등의 일정이었다.

첫째날 오전에 있었던 잼보리 오픈닝에서는 컨버너 정재욱 교수의 워크샵 주제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과 주제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워크샵의 큰 주제는 "Asiascape"으로 정하였고, 경제, 정치, 사회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 사회에서 서구인들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영역적이나 물리적인 경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 직면하여 아시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사회, 건축적 근거나 이론 등을 찾아보고, 이러한 아시아인의 특성과 글로벌 메커니즘에 대한 공존여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후 주제와 관련해서 건축사유결 선생님의 Jamboree Keynote Speech가 있었으며 강의와 더불어 각국의 학생들 질문과 답변시간이 있었다. 오후 시간에는 10개의 팀으로 나누어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참석 전 학생들

에게 미리 각자의 24시간 생활을 기록하여 오는 것을 과제로 주었던 것을 반이상의 참석자가 과제를 준비해와 이것에 대해 발표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각반 튜터에 의해 주어진 주제 안에서 자유로운 방향으로 진행한 후 결과물은 30일 오전에 아카시아 건축사들은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둘러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자인 워크샵, 부산투어, Friendship night 등의 행사를 같이 하며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북경 잼보리 행사 때까지는 학생 개인이 자국에서 가지고 온 작품을 단순 발표하던 기존 잼보리와 다르게 주제와 과제를 미리주고 워크샵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무척 높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볼 수 있어서 대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날 최종 발표회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들은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찬사를 보냈으며 하나같이 앞으로의 학생 잼보리 대회는 이번행사의 프로그램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것을 즉석에서 제안 하였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2008 제17차 UIA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 Meeting

필자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일에 북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쉬 도시에서 개최된 제17차 UIA PPC 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세계 무역 기구(WTO)가 건축설계 부분을 포함한 전문직능 자격을 무역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한 후 세계건축사연맹(UIA)은 자발적으로 건축실무 용역에 관한 국가간 상호 통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발족된 위원회이다.

올해로 17차를 맞이한 본회의는 아시아를 비롯한 북미, 유럽, 아프리카등 세계 회원국에서 각나라를 대표하여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3일간의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UIA의 Louise Cox회장과 PPC 위원장인 미국의 Douglas Stedl 대표가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동안 논의 되어왔던 10여개의 중점 의제를 중심으로 담당위원의 발표와 토론후 수정과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채택된 주요 사항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Internship Roundtable 에서는 그동안 호주의 Michael Peck 위원에 의하여 준비하여온 국제 인턴십의 정의와 목표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가 도출되었다.

토론회의 결론으로 인턴십의 목표는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회원국 국가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실무실습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경 없는 실무실습 경험을 돕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NCARB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래의 세계시장에서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원하는 국가에서 실무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UIA 는 이를 권장하는 내용의 인턴십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각국에 제공 하도록 한다. 또한 인턴십의 구체적 실현은 해당 국가의 건축사 등록 시스템이 유사한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IA는 국경 없는 인턴십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한다.

제16차 서울대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의 낭독과 수정이 있었다.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 UIA 이사회 관련 성과발표와 UNESCO-UIA 건축 교육 인증 시스템에 대한 Louise Cox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UIA에서 준비한 charter 과 건축 교육의 권고 사항들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했다. 특히 각 국가별로 다르게 개설되어 있는 학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UIA가 권장하는 범위 속에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2009년에는 이집트에서 1개 학교와 일본의 2개 학교가 인증 심사 신청하였으며 5년제 교육시스템과 다른 일본식 학제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필자는 UIA 건축 교육에 관한 권고 사항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대 다수의 국가들은 아직도 해당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UIA 교육위원회 에서는 Reflection Committee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외향적 잣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내향적 수용의 가치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다양성과 포괄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Louis Cox

회장은 5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 필자를 ARCASIA 교육위원장 자격으로 초청 하였고 차후 교육의 문제를 아카시아 회원국 국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보교환을 나누기로 하였다.

건축사 Mobility 와 국제적 협업관련 발표와 토론에서는 Gaétan Siew 전UIA 회장의 조사내용이 발표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은 건축사업부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간 건축협업이 빠른 속도로 증대됨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상호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건축사는 국가를 초월한 업무의 영역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국제적 설계 용역비 규모는 28억 유로(약 5조원)를 넘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 건축 실무내용과 교육 시스템의 활성화는 세계 시장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건축사실무의 국제적 표준화 의제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되었다.

각국의 건축사협회는 해당 정부와의 법적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별로 법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양하여 이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 교류와 업무의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조가 필수적이며 특히 영국 RIBA에서 작성한



제 17차 UIA PPC 회의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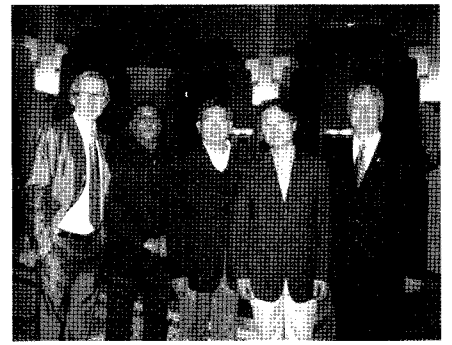
Code와 Documentation이 유익하게 정리되어 있어 본 자료를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과 각국의 정부기관과 협의하는데 있어 표본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한다.

건축사 설계업무에서 프로젝트 Delivery에 대한 일본의 Shinjiro Wachi 위원 발표가 있었다. 건축물의 규모나 프로그램 설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시대에 건축사의 작업 방법론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일괄 작업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발표의 내용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BIM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식과 추세에 대한 조사 발표가 진행 되면서 각국 대표들 사이에 논쟁이 야기 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건축사의 본 프로그램 활용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건축사 고유의 실무 작업과 창작행위의 전통성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특히 특정 국가의 업체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상업적 목적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본 주제의 연구를 현 단계에서 끝내고 발표 내용을 UIA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합의 하였다.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DP) 건축사 계속교육 관련하여 캐나다의 Bonnie Maples 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UIA에서는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의 구성은 불가능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제 17차 UIA PPC 회의 참석중인 정재욱 국제위원장



UIA PPC 참가자들과 함께

현재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관은 그 내용을 UIA 웹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회원국가 건축사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사용하는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공식 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Bonnie Maples 위원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다.

끝으로 3일 동안의 회의는 매우 진지한 토론과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필자 역시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현재 한국의 변화와 의지를 홍보하였으며 우리의 입장을 대변 하였다. 세계화의 중심에서 모든 세계의 건축사들은 국제적 통용에 걸맞은 건축 제도의 표준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정작,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법률적 해석의 차이, 정부와 이해관계와 문화적 색깔에 얽매어서 아직도 줄

다리기 하는 모습이 연연하다. 전통적 관념에서 건축사서로의 성격과 동질성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각각 자국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내부적 결정권한에 취약한 동시에 더 불어서 국제적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은 비록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사들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숙제이다. 건축의 교육과 실무의 연계, 건축사 인증, 국경 없는 건축실무와 인턴십, 건축사 윤리 책임과 설계업무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등의 주제들은 UIA의 권고 역할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각국의 행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가을 제18차 UIA PPC 회의는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이때에는 더욱 의미있는 이슈들의 협의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정재욱 위원장